

베이비부머의 자본역동과 삶의 질의 구조모형: 출생코호트의 조절효과

신학진

전주기전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A Structural Model of Baby Boomers' Capital Dynamics and Quality of Life: Moderated by Birth Cohort

Hak-Gene Shin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 Counseling, Jeonju Kijeon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자본역동과 역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더불어 초기와 후기베이비부머로 구분되는 출생코호트의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검증을 위해 303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델링을 적용했다. 연구결과는 첫째,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은 심리자본, 경제자본, 사회자본, 삶의 질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 둘째, 경제자본은 심리자본, 사회자본, 삶의 질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 셋째, 심리자본은 사회자본, 삶의 질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 넷째, 사회자본은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출생코호트는 경제자본이 심리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했다. 검증된 자원역동과 조절효과는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와 중재방향을 제공했다. 향후 연구지역을 농촌과 대도시로, 연구대상을 베이비붐 이후세대로 확장을 권고한다.

주제어 : 베이비부머, 자본역동, 삶의 질, 출생코호트, 구조방정식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iverse capital dynamics and the effect of the dynamics on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baby boomers living in Jeonju.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 of birth cohort.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ducted with 303 baby boomers for verifi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uman capital of baby boomer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psychological, economic,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Second, economic capital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psychological,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Third, psychological capital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Fourth, social capital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Fifth, the birth cohort moderated the impacts of economic capital on psychologic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The results provided an understanding of the quality of life of baby boomer and the direction of intervention.

Key Words : Baby boomer, Capital dynamics, Quality of life, Birth cohort, SEM

1. 서론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baby boomer)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대규모

은퇴와 중추적 노동력의 상실이 예측된 이후이다[1,2].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급변하는 사회적 위치와 베이비부머의 삶에 대한 이해부족에 배경을 두고 있다[1]. 일반적으로 자본(capital)의 개념은 축적된 생산수단

*Corresponding Author : Hak-Gene Shin(shin@kijeon.ac.kr)

Received May 28, 2019
Accepted August 20, 2019

Revised July 12, 2019
Published August 28, 2019

이거나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하고자 사용된 수단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자본은 현금과 유형자산을 포함한 경제자본(economic capital)의 개념이었다. 하지만 최근 자본개념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등으로 넓어지고 세분화되었다[3,4]. 개념의 외연이 확장되는 만큼 다양한 의미와 오해 그리고 비판이 이어졌다,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5,6]. 주목할 점은 주관적인 요소가 객관적인 요소보다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5].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주관적이며 다면적 자본개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에서 대상자를 원조하기 위해서 자원사정은 필수적 절차이다. 이때 당사자의 자원은 강점이며 개입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8]. 이런 정책적, 실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심리자본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5,9]. 하지만 기존연구들은 인구사회적 특징과 개별자본 간의 관계나 개별자본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즉 자본과 자본 사이의 인과적 역동과 역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며 구조적 논의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경제자본 외에 인적자본, 사회자본, 심리자본의 역동과 그 역동이 구조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간의 인지가 정서, 행동을 선행한다고 밝힌 Aaron Beck의 인지행동주의를 기반으로 다음 문제에 주목한다[7].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P1**: Lee, Kim[11] 등이 제시한 노인의 인적요인이 심리요인을 선행한다는 보고를 기반으로[10,11,12], 인적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P2**: Ban 등[20]이 확인한 인적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로[19,20] 인적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P3**: Liepé, Sakalas[14]이 보고한 인적요인이 경제요인의 생성과정을 모형에 적용하여[13,14,15], 인적자본이 경제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고자 한다. **P4**: Lee[8] 등이 연구한 인적요인과 사회요인의 관계를 활용하여[16,17,18], 인적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P5**: Eum[21] 등이 밝힌 빈곤층의 경제요인이 심리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21,22],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경제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P6**: Oh, Moon[23]의 경제요인이 사회요인을 선행한다는 보고를 기초로[23],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P7**: Kim[24] 등의 여성노인의 경제요인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보고를 기초하여[24,25], 경제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P8**: Son, Song[26] 등의 심리요인이 사회요인의 선행요인이라는 보고를 기초하여[13,26], 심리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P9**: Ha 등[27]의 심리요인이 삶의 질을 선행한다는 보고를 활용하여[26,27], 심리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P10**: Park, Yoon[29]의 성인의 사회요인이 삶의 질의 선행요인이라는 보고를 모형에 적용하여[28,29], 베이비부머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P11**: Han[1]은 한국 베이비부머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며, 환경변화는 초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 간의 동질성을 저해했을 개연성을 보고했다[1,30]. Han[1]에 따르면 초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는 자본변수가 역동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는 출생코호트를 초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로 정의하고, 출생코호트에 따른 구조모형의 차이를 확인한다.

검증결과는 베이비부머의 자본역동과 자본역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준거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개념과 측정도구

2.1.1 자본

경제자본의 개념은 현금, 유형자산, 수입, 수입의 충분성으로 구성했다[9]. 측정은 Luthans 등[9]이 개발하고, Yu[31]가 검증한 4문항을 사용했다[31]. 문항의 예는 “나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이며, 응답은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를 사용했다. 척도의 타당도 확인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적절하게 수렴되었으며, 신뢰도는 .820으로 확인되었다.

인적자본의 개념은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으로 구성했다[9,16]. 측정을 위해서 Luthans 등[9]이 개발하고, Yoo[16]가 검증한 일반지식 3문항, 전문지식 3문항을 사용했다. 문항의 예는 “나는 전문분야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이며, 응답은 6점 척도를 사용했다. 요인분석 결과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으로 각각 수렴했고, 신뢰도는 .861로 확인되었다.

사회자본의 개념은 Yoo[16]가 제시한 사회참여,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비공식 유대로 구성했다[16]. 문항은 사회참여 4문항, 신뢰 4문항, 네트워크 4문항, 사회적 규범 4문항, 비공식 유대 3문항을 이용했다[16]. 문항의 예는 “나는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이며, 응답은 6점 척도 이용했다. 요인분석 결과 5가지 요인으로 적절히 수렴했으며, 신뢰도는 .875로 확인되었다.

심리자본 개념은 자신감, 희망, 낙천성, 탄력성으로 구성했다[9]. 문항은 Yoo[16]가 검증한 자신감 4문항, 희망 5문항, 낙천성 3문항, 탄력성 4문항을 사용했다. 문항의 예는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이며, 응답은 6점 척도로 조사했다. 요인분석 결과 4가지 요인으로 적절히 수렴되었고, 신뢰도는 .921로 확인되었다.

2.1.2 삶의 질

삶의 질 개념은 신체적 웰빙, 경제적 물질, 가족관계, 지역사회 및 시민활동, 자기개발 및 성취, 여가를 포함했다[32]. 측정은 Flanagan[32], Burckhardt, Anderson[33]이 검증한 16문항을 사용했다[32,33]. 문항 예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과 밀접하다.”이며, 선택지는 6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6: 매우 그렇다)를 사용했다. 요인분석 결과 신체적 웰빙 2문항, 경제적 물질 2문항, 가족관계 4문항, 지역사회 및 시민활동 3문항, 자기개발 및 성취 2문항, 여가 2문항으로 수렴되었으며, 신뢰도는 .863이었다.

2.1.3 출생코호트

연구에서 조절변수인 출생코호트는 나이를 기반으로 분류된 전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로 정의했다. 출생코호트의 확인은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로 출생년도를 묻는 단일문항을 사용했다. Nagy[34]는 단일문항 측정의 실용성과 신뢰도를 검증했다[34](Table 1 참고).

2.2 조사분석

조사는 2017년 6월-7월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로 한정했다. 2017년 해당도시의 총인구는 약 65만 명이었고, 행정구역은 2개 구, 33개 동이었다. 표본을 위해 1구당 8개동으로 총 16개 동을 무작위 선정했다. 1동에 각각 동의하는 응답자를 20명씩 편의추출하여 총 320응답을 받았다. 조사장소는 아파트, 상가, 행정

복지센터, 공원, 사무실 등이었다. 응답자의 자기기입식으로 답변을 얻었다.

배포된 설문지 총 320부 중 312부가 회수되었다. 복수의 결측값을 포함한 설문지는 제거했다. 단일 문항의 결측값은 기대최대화법으로 대체했다. 잠재변수인 인적자본, 경제자본, 심리자본, 사회자본, 삶의 질은 관련된 측정문항의 항목묶기(item parceling)로 도출했다. 잠재변수의 이상치가 확인된 응답은 추가로 제외시켰다. 또한 Mahalanobis D^2 값으로 다변인 이상치(multi-variate outlier)를 식별했으며, 이상치 유의성은 $p < .001$ 수준에서 판단했다[42]. 주요변수의 정규분포를 확인했으며,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검증했다(Table 3 참고). 최종적으로 303응답이 분석대상이 되었다(Table 1 참고).

잠재변수의 신뢰도, 타당도를 확인한 뒤, 변수의 역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적용했다. 구조모형의 적합성과 경로의 회귀계수를 검증했다. 분석도구는 SPSS 22와 AMOS 22를 사용했다.

3. 연구결과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0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17년 현재 응답자의 나이분포는 60-64세인 초기베이비부머가 140명(46.2%), 56-59세인 후기베이비부머가 163명(53.8%)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 103명(34.0%)은 미취업. 200명(66.0%)이 취업상태이었다. 성별은 여성이 163명(53.8%), 남성이 140명(46.2%)으로 적절한 균형이었다. 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18명(5.9%). 대졸이 100명(33.0%), 전문대졸이 61명(20.1%), 고졸이 113명(37.3%), 중졸이하가 11명(3.6%)으로 확인되었다. 부양형태는 부양양육 부담이 없는 응답자가 45명(14.9%),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 47명(15.5%), 자녀양육이 198명(65.3%), 부모부양이 13명(4.3%)으로 집계되었다. 가구원수는 6명 이상이 11명(3.6%), 5명이 41명(13.5%), 4명이 138명(45.5%), 3명이 59명(19.4%), 1-2명이 54명(17.8%)이었다. 월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56명(18.5%), 400이상 500만원 미만인 55명(18.2%), 300이상 400만원 미만인 71명(23.4%), 200이상 300만원 미만인 70명(23.1%), 100이상 200만원 미만인 37명(12.2%), 100만원 미만인 14명(4.6%)이었다. 소득평균은 약 400만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당시 50세-59세 가구당 평

균소득인 458만원보다 다소 낮았다. 끝으로 주택소유는 무소유가 43명(14.2%), 소유가 260명(85.8%)으로 집계되었다. 주택소유비율은 전국평균인 77.6%를 상회하지만, 연구대상지역 평균인 87.3%에는 근접한 것이었다[37].

Table 1. Socio-demographic features (n=303)

Variables		Respondents	Percentage
Birth cohort	60-64*	140	46.2
	56-59*	163	53.8
Job	unemployed	103	34.0
	employed	200	66.0
Gender	female	163	53.8
	male	140	46.2
Education	≥ graduate	18	5.9
	university	100	33.0
	jr. college	61	20.1
	high school	113	37.3
	< middle school	11	3.6
Support type	none	45	14.9
	parents/children	47	15.5
	children	198	65.3
Num. of family	parents	13	4.3
	> 6	11	3.6
	5	41	13.5
	4	138	45.5
	3	59	19.4
Income per month (unit : 10,000won)	1-2	54	17.8
	≥ 500	56	18.5
	≥ 400 < 500	55	18.2
	≥ 300 < 400	71	23.4
	≥ 200 < 300	70	23.1
	≥ 100 < 200	37	12.2
House	< 100	14	4.6
	not own	43	14.2
	own	260	85.8

* Early babyboomer(1955-1959), Late babyboomer(1960-1963)

3.2 잠재변수의 기술통계

경로모형에서 사용된 잠재변수의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경제자본(Ec_Cap)의 평균은 3.578(표준편차=.854)으로 가장 낮았으며, 심리자본(Ps_Cap)의 평균은 4.420(표준편차=.586)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임계치(|왜도|=3, |첨도|=8~10)를 넘지 않아 정규분포의 가정에 부합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latent variables (n=303)

	Min	Max	Avg.	SD	SK	KT
Hu_Cap	1.670	5.830	3.677	.823	-.090	-.395
Ec_Cap	1.250	6.000	3.578	.854	-.191	-.214
Ps_Cap	2.000	5.880	4.420	.586	-.363	.677
So_Cap	2.210	6.000	4.202	.530	-.023	.294
QoL	2.310	5.060	3.631	.502	-.219	-.251

Hu_Cap : Human Capital, Ec_Cap : Economical Capital, Ps_Cap : Psychological Capital, So_Cap : Social Capital, QoL : Quality of Life, SD : Standard Deviation, SK : Skewness, KT : Kurtosis

3.3 잠재변수의 다중공선성

잠재변수들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이 확인되었다. 잠재변수의 상관계수는 수용 가능한 범위이며,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을 제외하고는 독립변수 간 변별력은 높은 편이었다. 추가로 잠재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서 공차한계(TL : 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확인했다. 공차한계는 .563~.864사이에 분포하여 임계치인 .1보다 모두 컸다. 분산팽창요인은 모두 1.158~1.777사이에 분포하여 임계치인 10보다 작았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Table 3. Multicollinearity and Correlations of LV

LV	MC		Correlations			
	TL	VIF	Hu_Cap	Ec_Cap	Ps_Cap	So_Cap
Ec_Cap	.708	1.412	.356**			
Ps_Cap	.864	1.158	.437**	.241**		
So_Cap	.563	1.777	.437**	.219**	.635**	
QoL	.565	1.770	.489**	.432**	.623**	.675**

** p<.01, LV : Latent Variables, TL : Tolerance, 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

3.4 경로모형 검증

3.4.1 모형 적합성

Table 4. Comparison of model fit indices

Model	Indices of path models					
	χ ²	DF	SRMR	RMSEA (LO90-HI90)	TLI (NNFI)	CFI
Init. Model	50.088**	44	.044	.012(.000-.026)	.993	.997
Modi. Model	51.129*	45	.042	.012(.000-.026)	.993	.997

* p = .246, ** p = .245

Init. : Initial, Modi. : Modified, DF : Degree of freedom, SRMR :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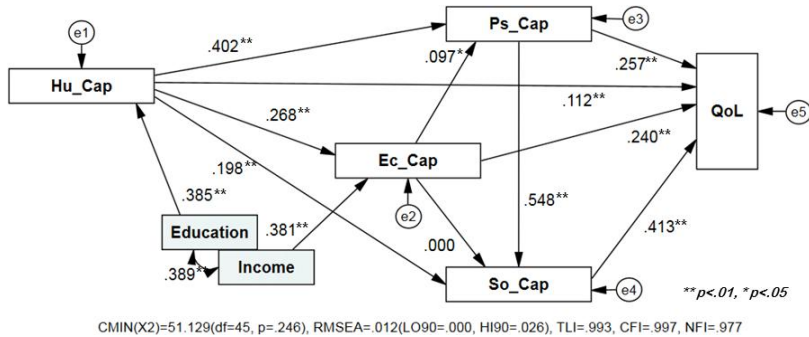
초기모형의 적합지수 $\chi^2=50.088(df=44, p>.05)$ 으로 수용되었다<table 4>. 절대적합지수인 SRMR=.044로 양호했으며, RMSEA의 평균은 .012, 90% 신뢰구간에서 .000-.026 사이의 값으로 적절했다. 상대적합지수인 TLI(NNFI)=.993, CFI=.997로 역시 적합했다. 하지만 초기모형에서 경제자본(Ec_Cap)→사회자본(So_Cap)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모형을 수정했다 (Table 5 참고). 수정모형의 적합지수 $\chi^2=51.129(df=45, p>.05)$ 으로 적절했다(Table 4 참고). 절대적합지수인 SRMR=.042로 양호했으며, RMSEA는 평균이 .012, 90% 신뢰구간에서 .000-.026 사이의 값으로 수용되었다. 상대적합지수인 TLI(NNFI) =.993, CFI=.997으로 역시 적절했다.

초기모형을 수정모형으로 변경했을 때,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의 차이인 $\Delta\chi^2=1.041(\Delta df=1, p=.308)$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정모형의 채택을 지지하였다.

3.4.2 경로계수와 유의성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모수추정치는 Fig 1과 table 5와 같이 확인되었다. Fig 1은 Amos 경로모형분석의 결과이며, table 5의 경로계수는 부트스트랩(bootstrap) 기법으로 유의성을 검증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P1: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Hu_Cap)이 심리자본(Ps_Cap)에 미치는 직접영향($\beta=.402, p<.01$)은 유의미했다. 인적자본이 경제자본(Ec_Cap)을 매개하여 심리자본에 미치는 간접영향($\beta=.026, p<.05$)도 유의미했다. 따라서 인적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자본이 부분매개했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의 합인 총영향($\beta=.428, p<.01$)도 유의미했다. P2: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이 삶의 질(QoL)에 미치는 직접영향($\beta=.112, p<.01$)은 유의미했다. 인적자본이 심리자본, 경제자본, 사회자본(So_Cap)을 매개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영향($\beta=.353, p<.01$)도 유의미했다. 따라서 인적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자본, 경제자본, 사회자본이 부분매개했고, 총영향($\beta=.465, p<.01$)도 유의미했다. P3: 베



CMIN(X2)=51.129(df=45, p=.246), RMSEA=.012(LO90=.000, HI90=.026), TLI=.993, CFI=.997, NFI=.977

Fig. 1.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of verified path model

Table 5. Significance of path coefficients

Direct path / Indirect path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β)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P1: Hu_Cap → (Ec_Cap) → Ps_Cap	.428**	.402**	.026*
P2: Hu_Cap → (Ps_Cap, Ec_Cap, So_Cap) → QoL	.465**	.112**	.353**
P3: Hu_Cap → () → Ec_Cap	.268**	.268**	
P4: Hu_Cap → (Ec_Cap) → So_Cap	.433**	.198**	.235**
P5: Ec_Cap → () → Ps_Cap	.097*	.097*	
P6: Ec_Cap → (Ps_Cap) → So_Cap	.053*	ns	.053*
P7: Ec_Cap → (Ps_Cap, So_Cap) → QoL	.287**	.240**	.047*
P8: Ps_Cap → () → So_Cap	.548**	.548**	
P9: Ps_Cap → (So_Cap) → QoL	.483**	.257**	.226**
P10: So_Cap → () → QoL	.413**	.413**	

* $p<.05$, ** $p<.01$, (): mediator

이비부머의 인적자본이 경제자본에 미치는 영향($\beta=.268, p<.01$)은 유의미했다. P4: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직접영향($\beta=.198, p<.01$)은 유의미했다. 인적자본이 심리자본, 경제자본을 매개하여 사회자본에 미치는 간접영향($\beta=.235, p<.01$)도 유의미했다. 따라서 인적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자본, 경제자본이 부분매개했고, 총영향($\beta=.433, p<.01$)도 유의미했다. P5: 베이비부머의 경제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beta=.097, p<.05$)은 유의미했다. P6: 베이비부머의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직접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자본이 심리자본을 매개하여 사회자본에 미치는 간접영향($\beta=.053, p<.05$)은 유의미했다. 따라서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자본이 완전매개했다. P7: 베이비부머의 경제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영향($\beta=.240, p<.01$)은 유의미했다. 경제자본이 심리자본, 사회자본을 매개한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영향($\beta=.047, p<.05$)도 유의미했다. 따라서 경제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자본, 사회자본이 부분매개했고, 총영향($\beta=.287, p<.01$)도 유의미했다. P8: 베이비부머의 심리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beta=.548, p<.01$)은 유의미했다. P9: 베이비부머의 심리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영향($\beta=.257, p<.01$)은 유의미했다. 심리자본이 사회자본을 매개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영향($\beta=.226, p<.01$)도 유의미했다. 따라서 심리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자본이 부분매개했으며, 총영향($\beta=.483, p<.01$)도 유의미했다. P10: 베이비부머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beta=.413, p<.01$)은 유의미했다. 잠재변수 외의 변수로 교육이 인적자본에 유의미한 영향($\beta=.385, p<.01$)을 미쳤고, 월소득은 경제자본에 유의미한 영향($\beta=.381, p<.01$)을 미쳤다. 교육과 월소득의 상관관계($r=.389, p<.01$)도 확인되었다.

3.5 출생코호트의 조절효과 : P11

모형에서 출생코호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계수는 Table 6과 같았다. ① 베이비부머의 출생코호트는 경제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했다($Ec_Cap \rightarrow Ps_Cap, z\text{-score}=2.682, p<.01$)[35,36]. 후기베이비부머의 경제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beta=.251, p<.01$)이 초기베이비부머의 경제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beta=-.048, \text{not sig.}$)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이 확인되었다. ② 베이비부머의 출생코호트는 경제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했다($Ec_Cap \rightarrow QoL,$

$z\text{-score}=2.096, p<.05$). 후기베이비부머의 경제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beta=.348, p<.01$)이 초기베이비부머의 경제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beta=.158, p<.01$)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이 확인되었다.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birth cohort

Path	Early Baby Boomer		Late Baby Boomer		z-score
	B	β	B	β	
Hu_Cap \rightarrow Ps_Cap	.792	.417	.749	.397	-.212
Hu_Cap \rightarrow QoL	.211	.131	.188	.117	-.165
Hu_Cap \rightarrow Ec_Cap	.180	.276	.192	.269	.184
Hu_Cap \rightarrow So_Cap	.387	.189	.436	.219	.258
Ec_Cap \rightarrow Ps_Cap	-.139	-.048 ^t	.662	.251**	2.682**
Ec_Cap \rightarrow QoL	.391	.158**	.780	.348**	2.096*
Ps_Cap \rightarrow So_Cap	.549	.509	.627	.593	.768
Ps_Cap \rightarrow QoL	.234	.276	.184	.217	-.589
So_Cap \rightarrow QoL	.331	.422	.296	.369	-.444

** $p<.01$, * $p<.05$, ^tnot sig.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 경제자본, 심리자본, 사회자본의 역동과 역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또한 출생코호트가 역동과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했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이 경제자본, 심리자본, 사회자본과 삶의 질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는 앞서 제시한 다양한 관련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Lee[12]의 인적자본에 따라 사회적 관계 및 참여에 차이가 있으며, 삶에 질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경로별 직접영향의 크기는 인적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경제자본, 사회자본의 순이었다. 총영향은 인적자본이 삶의 질에 가장 크게 미쳤고, 사회자본과 심리자본에도 높은 영향을 미쳤다. 주목할 점은 본 연구가 Lee[18]이 지적한 사회자본의 추상성을 구체화했으며, 인적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연구 제안을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Aron Beck의 개인이 가지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지각이 그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나 행복을 초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경제자본이 심리자본, 사회자본,

삶의 질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확인했다. 경제자본은 심리자본에 비교적 낮은 영향을 미쳤다.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지지하는 연구로 Eum 등[21,22, 38]은 인간의 경제자본이 삶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Amato[39] 역시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 빈곤층의 행복감이 도시지역보다 낮다고 보고했다. 이같이 다양한 연구가 베이비부머의 경제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지지했다. 한편 경제자본이 사회자본에 낮은 수준이지만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Oh[23]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경제자본은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Yu[31]이 검증한 절대빈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Kim[5]의 경제력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인적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는 점의 확인이다.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인적자본이 경제자본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했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심리자본은 사회자본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심리자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지지하는 연구로 Yoo[16]은 긍정적인 낙천성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Kim[13]은 심리자본을 사회자본의 활성화 요인으로 해석했다. 한편 상반된 주장으로 Jeong[41]은 사회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했다. 이상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상이한 연구결과 때문에 두 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했다. 관련하여 Moon[42]는 구조모형모델링에서 경험적 자료의 수학적 탐색을 통해 최적모형을 찾는 경우에는 모형을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본 연구는 수학적 탐색을 통해서 심리자본이 사회자본에 선행하는 최적모형을 선택했다. 선택된 모형은 Kim 등[13,16,40]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Yoo 등[16,26,27]은 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낙천성,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의 선행변수임을 밝혀 본 연구결과를 지지했다.

넷째, 베이비부머의 사회자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자본이 없으면 인간의 웰빙은 없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Kim 등[5,28]도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지지했다. 또한 Son[26]은 사회자본이 삶의 질과 유사한 개념인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Park[29]는 관계

상실이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증했다. 따라서 연구결과인 베이비부머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섯째, 베이비부머의 출생코호트는 경제자본이 심리자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했다. Han[1]은 초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가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본 연구결과는 이런 추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검증했다. 첫째, 경제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출생코호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후기베이비부머의 경제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유의미했다. 초기베이비부머의 경우 경제자본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후기베이비부머의 경제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초기베이비부머의 경제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것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Han[1]의 초기베이비부머와 후기베이비부머가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의 일부를 검증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천이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 경제자본, 심리자본, 사회자본이 역동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확인된 역동성은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실천, 정책의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가가 베이비부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의 역동성, 자본의 영향력 등의 준거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심리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경제자본의 순이다. 영향력의 차이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천에서 심리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의 개선에 더 큰 비중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다른 자원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경제자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베이비부머는 후기베이비부머보다 경제자본이 유의미하게 낮다($\Delta Ec_Cap = -.85, F=4.74, p<.05$). 경제자본이 낮은 초기베이비부머는 낮은 삶의 질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검증에 따르면 낮은 경제자본은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을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초기베이비부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은 이들의 경제자본 이외에 자신감과 탄력성 회복이나 사회적 참여나 유대 등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심리, 사회자본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연구대상인 베이비부머의 표본은 중소도시에 한정했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연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과 대도시의 베이비부머에 대

한 추가검증이 권고된다. 둘째, 통계청에 의하면 베이비부머와 다른 출생코호트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소득이 베이비부머보다 높다. 즉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다양한 자원과 삶의 질 등이 베이비부머와 다를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베이비부머와 베이비붐 이후 세대로 확장, 비교하는 것은 유의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출생코호트는 긴 시간 다양한 변수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체이다. 어떤 변수들이 베이비부머라는 출생코호트에 영향을 미치고, 집체의 동질성을 구성하는가를 검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1] H. K. Han. (2010). *Baby Boomer in Korea: Understanding Life Course and Life World*. Keynote speech of Korea Society for Advanced Studies in Spring
- [2] H. N. Park, D. K. Shin, S. K. Lee, J. Han, J. K. Kim, & I. C. Shin. (2010). *A Study on the Work Life of Korean Baby Boomers*. Korea Labor Institute
- [3] B. Fine. (2002). *Social capital versus social theory*. Routledge.
- [4] S. Kim. (2004). A critique of boudieu's, coleman's and putnam's concept of social capital. *Korean Sociological*, 33(6), 63-95.
- [5] M. R. Kim, S. J. Kwon, C. S. Park. (2012). Influence of Information Usage on Information Life Satisfaction in Baby Boomers. *Research on the Elderly Welfare*, 57, 113-136.
- [6] H. G. Shin. (2014). Effect of Baby Boomers' Economic Status on Quality of Lif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0(4), 161-183.
- [7] A. T Beck, R. A. Steer & M. G. Carbin, (1988).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Twenty-five years of evalu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8(1), 77-100.
- [8] J. S. Kwon, S. G. Kim, S. K. Kim, S. C. Kim, H.S. Kim, S. Y. Min...S. G. Yoo. (2012), *Case Management*, Seoul: Hakgisa
- [9] F. Luthans, K. W. Luthans, B. C. Luthans (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45-50.
- [10] H. S. Han. (2004).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Korean Social City. *Social Welfare Policy*, 19 (Single Issue), 113-142.
- [11] J. H. Lee, W. Kim. (2008).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duca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Korean Gerontology*, 28(4), 887-905
- [12] G. Y. Lee. (2010),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Korean Elderly by Educational Level: Focusing on Social Relationship, *Participation and Health. Korean Gerontology*, 30(3), 709-726.
- [13] H. J. Kim, D. S. Shim (2013).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apital on Innov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6(11), 3003-3028.
- [14] Ž. Liepė & A. Sakalas. (2014). Evaluation of human capital role in the value creation process. *14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6, 78-82.
- [15] H. McGuirk, H. Lenihan & M. Hart, (2015). Measuring the impact of innovative human capital on small firms' propensity to innovate. *Research Policy*, 44(4), 965-976. DOI: 10.1016/j.respol.2014.11.008
- [16] H. S. Yoo. (2005).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Utilization Plan of Women's Capital. *Asian Women's Studies*, 44(2), 225-259.
- [17] J. Y. Park. (2006). Analysis and Tasks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Capital for Loc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Focus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Studies in lifelong education*, 12, 23-52.
- [18] S. I. Lee.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Human Capital, *Journal of Human Resources*, 2, 97-111
- [19] U. C. Kim & Y. S. Park (2006). Exploring the factors that constitute the quality of life in Korean socie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ulture and Society*, 12(5), 1-28.
- [20] S. J. Ban, H. J. Cho, Y. J. Lee & J. K. Lee. (2015). The Effect of Education Level on Quality of Life as a Result of Education Investment: Mediating Effect of Employment, Health, and Social Relations. *Research of Educational Finance and Economics*, 24(2). 111-131.
- [21] T. W. Eum. (2008). The Effects of Self - 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Economic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Poor.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8, 36-66.
- [22] K. H. Kim, (2010),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Rural Resi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2(2), 81-97.
- [23] K. J. Oh & K. J. Moon. (2006).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Poor Families: Mediating Effect of Family Risk Factors and Parent - Child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59-76.
- [24] M. R. Kim. (2008). Factors of Successful Aging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Women.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8(1), 33-48.
- [25] S. W. Kim, H. S. Jo. (2013), The Impact of Financial

- Condi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Korean Baby Boomers: Comparison between employed and non-employed Baby Boomers,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33
- [26] E. I. Son & J. S. Song. (2012).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dustrial Economics Research*, 25(6), 3953-3975.
- [27] B. Y. Ha, E. J. Jung & S. Y. Choi. (2014). Effects of Resilienc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n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 83-91.
DOI: 10.4069/kjwhn.2014.20.1.83
- [28] J. S. Kim, S. I. Choi. (2010). The Effects of Lifestyle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Family Welfare*, 15(3), 97-119.
- [29] E. A. Park & M. S. Yoon, (2015).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ss of Rela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Adults.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43(1), 168-197.
- [30] H N. Bang, D. G. Shin, S. G. Lee, J. Han, J. G. Kim & I. C. Shin. (2010). *A Study on the Work Life of Korean Baby Boomers*. Korea Labor Institute.
- [31] J. W. Yu. (2011).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cological system variables. *Journal of Social Welfare Policy*.(single issue), 109-135.
- [32] J. C. Flanagan. (1982).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current state of the art.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3(2), 56-59.
- [33] C. S. Burckhardt, K. L. Anderson. (2003). The Quality of Life Scale (QOLS): reliability, validity, and utilization.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1), 60.
- [34] M. S. Nagy. (2002). Using a single-item approach to measure facet job satisfact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5(1), 77-86.
- [35] B. M. Byrne. (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Routledge.
- [36] J. Gaskin. (2012). *Multi-group : Testing Multi-group Moderation using Critical Ratios*. Retrieved in Mar. 20, 2018 from Gaskination's StatWiki. <http://statwiki.kolobkreations.com>.
- [37] Statistics Korea. (2014).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per household by age group*. Statistics Korea.
- [38] E. M. Hetherington, R. D. Parke & V. O. Locke. (1999). *Child psychology: A contemporary viewpoint*. US: McGraw-Hill.
- [39] P. R. Amato, J. Zuo. (1992). Rural Poverty, Urban Pover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ociological Quarterly*, 33(2), 229-240.
- [40] Y. J. Son.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Depression in Urban and Rural Elderly. *Journal of GRI Research*, 12(3), 311-339.
- [41] J. Y. Jeong, J. H. Lim. (2011). The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Health, an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Ego Resilien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3(1), 37-51.
- [42] S. B. Moon. (2009). *Basic Concept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Hajisa Publishing

신 학 진(Hak-Gene Shin)

[상위]



- 1991년 12월 : 위스콘신주립대학교 전산학과(이학석사)
- 1999년 2월 :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박사)
- 2009년 2월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1993년 3월 ~ 현재 : 전주기전대학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회복지상담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 E-Mail : shin@kijeon.ac.kr